

사랑이 피는 기독교인의

5월, 월례미사

소록도 성지순례

May 20.2024



소록도 성지순례 일정표

May 20, 2024

***오전 7시 출발(가톨릭회관 후문)**

***오후**

1시 - 2시 소록 도착 후 점심식

2시 - 3시 미사 및 성체조배

3시 - 4시 30분 소록도 순례 후 출발

7시 20분 전주에서 저녁식사

**10시 50분 강남 고속터미널 하차 후
명동도착**

찬양

지금 갑니다

눈이 번쩍 떠지네 지금
귀가 활짝 열리네 지금
나의 주님 만나러 가는 지금
설레이는 내 마음 나의 주님 아실거야
미소로 날 반겨 주실거야
예쁜 옷을 차려입고 연지곤지 화장하고
나의 주님 당신께로 지금 달려 갑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당신을 찬양하러 갑니다
지금 달려 갑니다 내가 달려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찬양

울렁 울렁 거리네 지금
콩닥 콩닥 거리네 지금
나의 주님 만나러 가는 지금
두근 두근 내 마음 나의 주님 아실거야
사랑으로 날 반겨주실거야
예쁜 옷을 차려입고 연지곤지 화장하고
나의 주님 당신께로 지금 달려 갑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당신을 찬양하러 갑니다
지금 달려 갑니다 내가 달려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찬양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당신을 찬양하러 갑니다
지금 달려 갑니다
내가 달려 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고인의 기도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저에게 고갯길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다만 저에게 고갯길 올라가도록
힘을~ 힘을 주소서

찬양

주여 내가 가는 길에
부딪치는 돌이 저절로 굴러가길 원치 않아요
굴러가길 원치 않아요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하소서
그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가게~ 가게 하소서

주여 넓고 편평한 길 그런 길 바라지 않아요
좁고 험한 길이라 해도 주와 함께 가길 원해요
주와 함께 가도록 더더욱 깊은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와 함께 가도록 더더욱 깊은 믿음 주세요
믿음~ 믿음 주세요

찬양

주와 가도록 더더욱 깊은 믿음 주세요

믿음~ 믿음 주세요

주여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하지 않아요(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주여 기도하지 않아요

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 말아라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느님이라

찬양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느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미사

교회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Agape Youth Group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244. 성모의 성월

후렴 : 성모성월이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 1) 가장 고운 꽃 모아 성전 꾸미오며
기쁜 노래 부르며 나를 드리오리
- 2) 오월 화창한 봄날 녹음 상쾌한데
성모 뵈옵는 기쁨 더욱 벅차오리
- 3) 들에 핀 옥잠화가 곱고 청순하나
성모 정결한 덕은 비할 데 없어라
- 4) 우리 어머니 함께 주를 사랑하니
영원하오신 천주 뵈게 하옵소서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무 열매를 먹은 뒤, 주 하느님께서 그를 9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10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11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12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13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14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짐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15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20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 거룩한 산 위에 세운 그 터전, 주님이 야곱의 어느 거처보다,
시온의 성문들을 사랑하시네. ◎
- 하느님의 도성아, 너를 두고 영광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몸소 이를 굳게 세우셨다.” ◎
- 주님이 백성들을 적어 가며 헤아리신다.
“이자는 거기에서 태어났다.” 노래하는 이도 춤추는 이도
말하는구나. “나의 샘은 모두 네 안에 있네.”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을 낳으신 동정녀, 복되신 교회의 어머니,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네.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25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26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27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28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9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30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31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32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33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34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봉헌성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영성체송

예수님의 어머니도 갈릴래아 카나의
혼인 잔치에 계셨네.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 영광을 드러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

168. 오묘하온 성체

- 1) 오묘하온 성체 앞에 찬미함송 드리세
떡과 술의 형상 안에 어떤 이 감취신고
- 2) 예수 수난 전날 밤에 이 성사를 세우고
우리 영혼 기르시려 주신 거룩한 성체
- 3)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받아먹고 마시라
세말까지 나의 기억 이 성사로 행하라
- 4) 예수 말씀 아니시면 우리 어찌 알리오
예수 말씀 아니시면 누가 감히 영하리

후렴 : 하느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의 몸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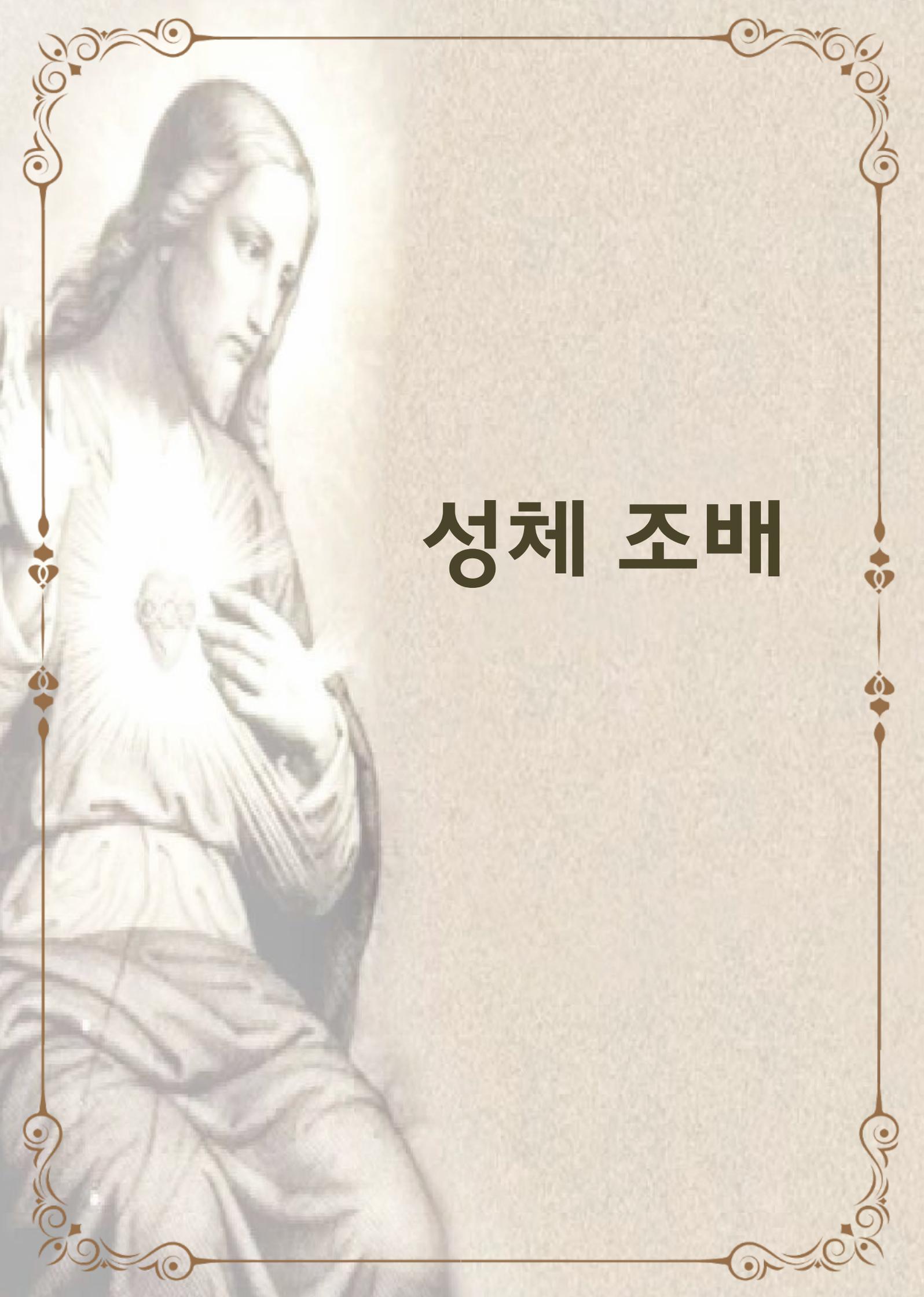
257. 나의 기쁨 마리아여

1) 나의 기쁨 성 마리아 나의 어머니시여
슬픔 중의 손을 잡아 나를 위로해 주소서

2) 나의 희망 성 마리아 나의 어머니시여
어둠 중의 길을 밝혀 나를 이끌어 주소서

3) 나의 도움 성 마리아 나의 어머니시여
평화 중에 머물도록 나를 축복해 주소서

후렴 : 동정 성모 마리아 내 삶을 맡겨드리니
늘 인도하여 주소서



성체 조배

199. 예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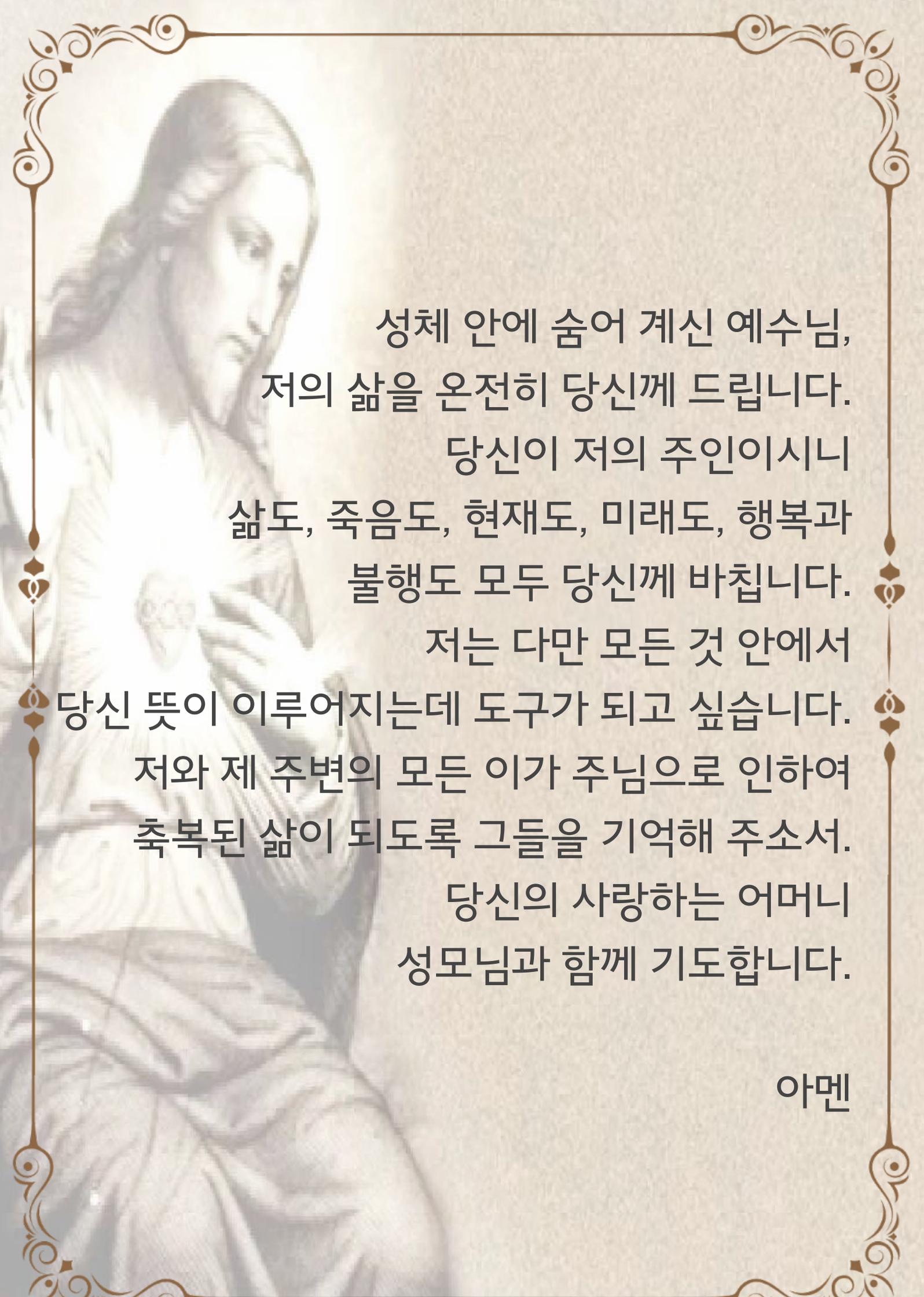
예수 마음 겸손하신 자여
내 마음을 내 마음을

1. 열절케 하사 네 성심과 네 성심과 같게 하소서
2. 잡아 당기사 네 성심에 네 성심에 결합하소서
3. 차지하시와 네 성심에 네 성심에 보존하소서
4. 변화케 하사 네 성심과 네 성심과 바꿔주소서



성체조배 시작기도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당신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저는 단순함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당신께 나왔습니다.
아기가 그의 살아하는 엄마와 함께
기쁨과 슬픔, 즉 모든 것을 함께 하듯이
당신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저를 당신
자신으로 변형시켜 주소서.
이것이 제가 매일 받는 영성체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저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니
삶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저는 다만 모든 것 안에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모든 이가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삶이 되도록 그들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성체조배 마침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봉헌하나이다.

●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어
기쁨 때나 슬픔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강복 전 기도

+ 주 우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 기도합니다.

이 기묘한 성사로

주님의 수난을 기념하게 하신 하느님,
비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구원의 은혜를 느끼며,
주님의 성체와 성혈의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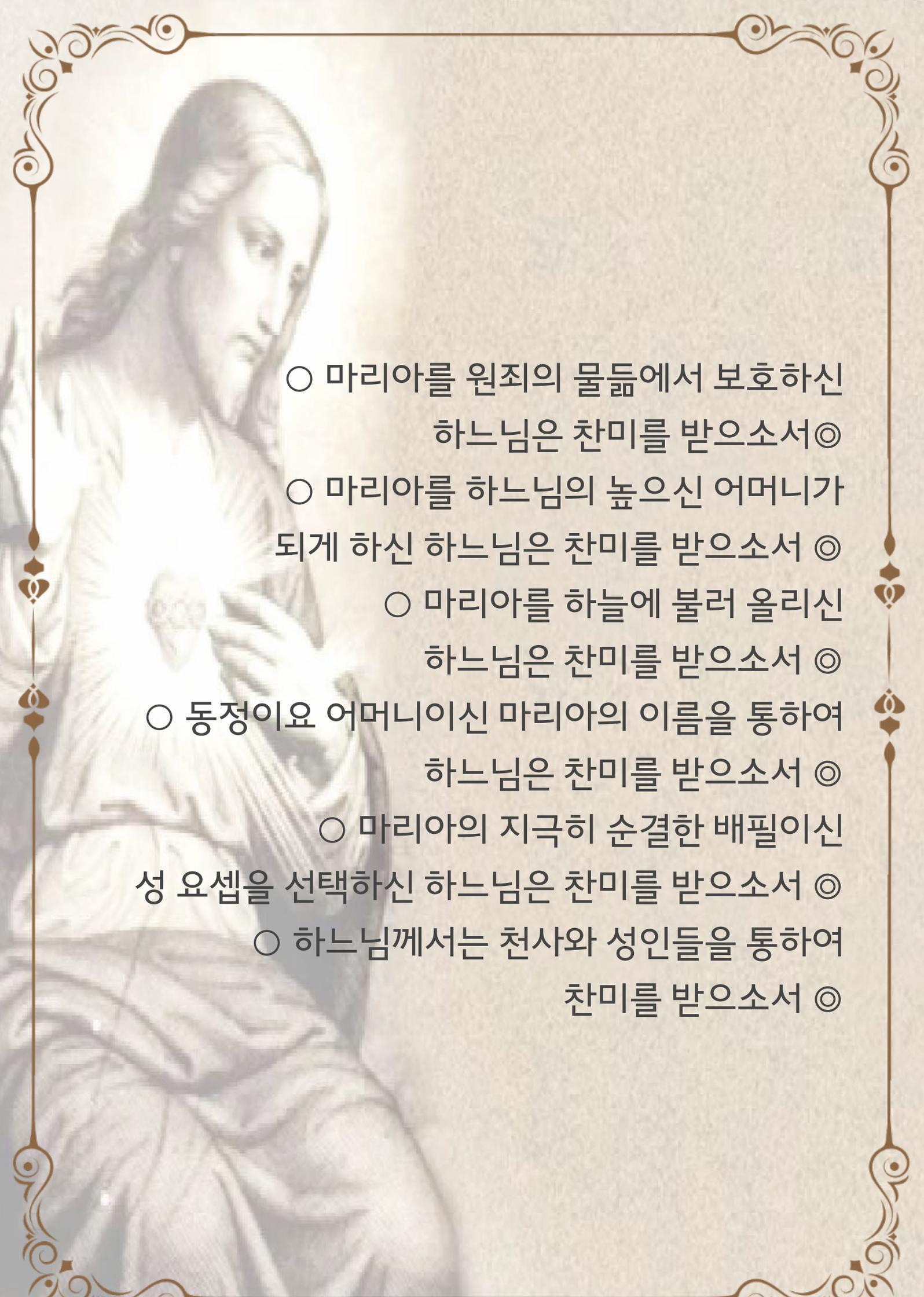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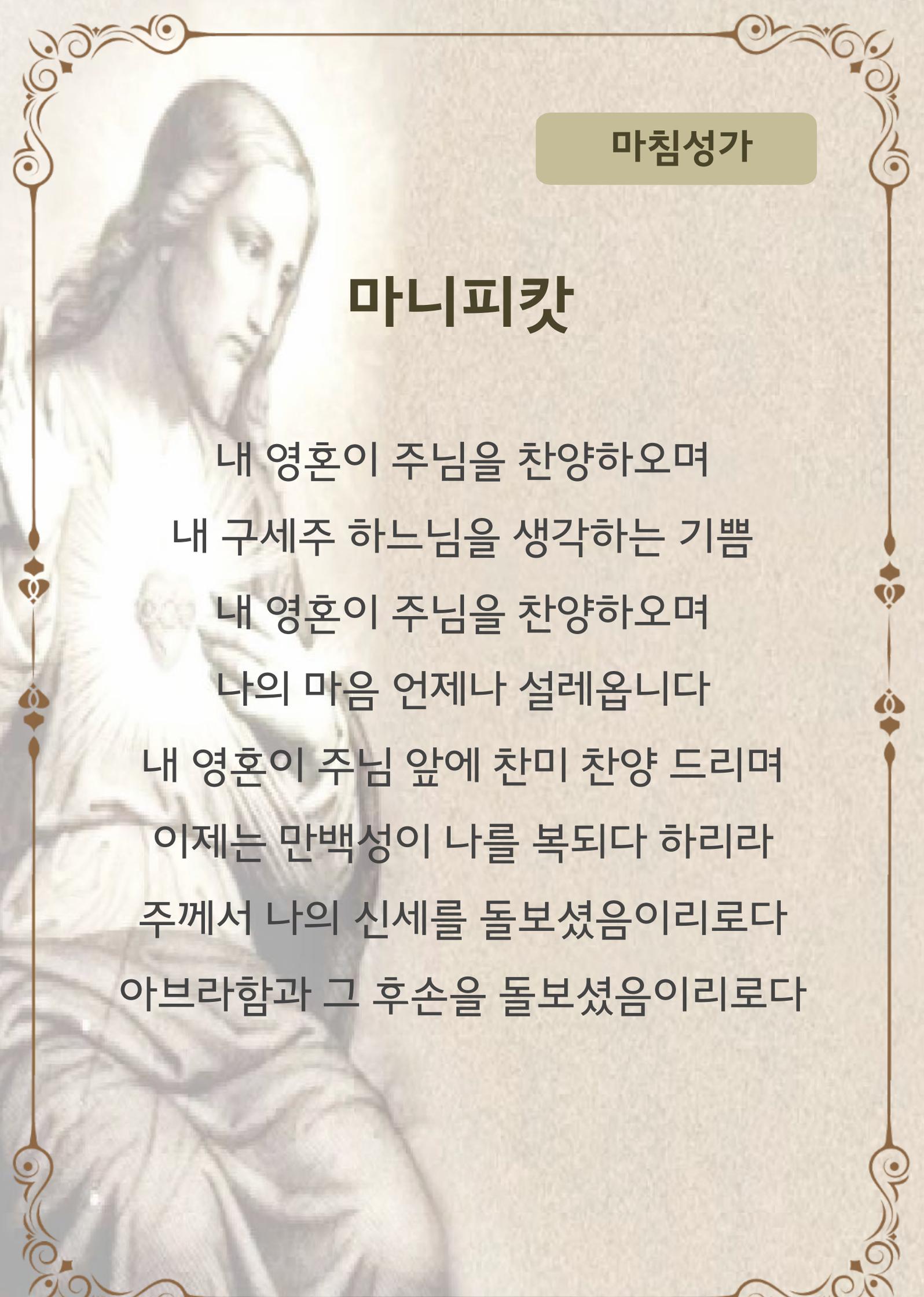


하느님 찬미경

-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지극히 거룩한 예수성심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는 찬미를 받으소서 ◎
- 제대 위의 지극히 거룩한 성사안에 계신
예수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위로자이신 바라끌리또 성령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를 원죄의 물뿤에서 보호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를 하느님의 높으신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동정이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이름을 통하여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배필이신
성 요셉을 선택하신 하느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
- 하느님께서서는 천사와 성인들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소서 ◎



마침성가

마니피캣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내 구세주 하느님을 생각하는 기쁨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며
나의 마음 언제나 설레옵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드리며
이제는 만백성이 나를 복되다 하리라
주께서 나의 신세를 돌보셨음이리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돌보셨음이리로다

성모님께 자기를 바치는 기도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는 비록 성모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성모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모든 천사와 더불어 성모님을 어머니로
모시는 저희를 자애로이 지켜 주소서.

● 저희는 성모님의 아들 예수님을
더욱 충실히 섬기며 어머니 슬하에
살기로 약속하나이다.

○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숨을 거두시며 당신 자신은 성부께 맡기시고
성모님은 제자에게, 제자는 성모님께
맡기셨나이다.

●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맺어진 모자의 인연으로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온갖 위험과 고통 중에 돌보아 주시며
죽을 때에 저희를 저버리지 마소서.

◎ 아멘.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오! 인자하시고 티없이 조출하신 어머니
제가 어머니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됨을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오며
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받들어 드리나이다.

오! 더없이 좋으신 어머니
저는 지금부터 저의 죄악과 욕심과 애착심과
제 나름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어머니 품안에 안기옵나이다.



그리하여 어머니의 사랑 넘친
마음을 닮게 되고
주님 닮은 자 되어
언제나 어머니의 이끄심으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과 선행을 드리고자 하오니
오! 어머니 마리아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모 호칭 기도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모 호칭 기도

○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 자비를 베푸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천주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다음은 같은 후렴)

○ 천주의 성모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그리스도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

자비의 어머니

천상 은총의 어머니



성모 호칭 기도

희망의 어머니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순결하신 어머니

평생 동정이신 어머니

티 없으신 어머니

사랑하올 어머니

탄복하올 어머니

슬기로우신 어머니

창조주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공경하올 동정녀

찬송하올 동정녀

튼튼한 힘이신 동정녀

인자하신 동정녀

성실하신 동정녀

정의의 거울

상지의 옥좌



성모 호칭 기도

즐거움의 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신비로운 그릇

존경하올 그릇

지극한 사랑의 그릇

신비로운 장미

다윗의 망대

상아 탑

황금 궁전

계약의 궤

하늘의 문

샬별

병자의 치유

죄인의 피신처

이주민의 위로

근심하는 이의 위안

신자들의 도움

천사의 모후

성조의 모후



성모 호칭 기도

예언자의 모후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사도의 모후

순교자의 모후

증거자의 모후

동정녀의 모후

모든 성인의 모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모후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모후

묵주 기도의 모후

가정의 모후

평화의 모후



성모 호칭 기도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를 용서하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 자비를 베푸소서.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되신 평생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공지

2024년 6월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 일시: 6월 17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특강: 예수 성심의 사랑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